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늘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일까, 행복한 일일까?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영화화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80세의 노인으로 태어나 거꾸로 인생을 살며 결국은 아기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한 남자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다. 항상 문제작만을 만들어 온 데이빗 핀치 감독의 취향과 딱 맞아 떨어지는 소재인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시간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1918년 1차 세계 대전 말 뉴올리언스, 80세의 외모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다. 바로 벤자민 버튼(브래드 피트).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벤자민을 낳다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분노와 아이의 너무나 평범하지 않은 외모에 경악한 아버지는 양로원 현관 앞에 벤자민을 버린다.

물론 실제로는 일어날 리 만무한 황당

포레는 당초 이 곡을 가벼운 음악회 연주용으로 작곡하였다가 편곡을 하여 관현악 버전을 만들었고, 후원자의 요청으로 베를렌스의 시구절을 가사로 인용하여 합창곡 버전까지 만들었다.

포레가 작곡한 선율 가운데서도 가장 대중적이며 유명한 선율이니만큼 오늘날에는 수많은 악기와 편성으로 변형되어 각종 음악회에서 연주되고 있으며, 수많은 영화나 CF에서 사용되고 있다.

카페에서 듣는 것처럼 가장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연주는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의 음반이다. 곡의 서정성과 우아함을 정말 영화음악처럼 사랑스럽게 표현해 주는 연주. 유명한 명인 토미 라일리가 하모니카로 연주한 버전은 클래식 악기가 갖지 못한 독특한 맛과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정통 관현악 버전으로는 지휘자 레너드 슬레트킨이 성

착한 가격에 각종 공연... '夜 벼룩시장'은 문화장터

19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남도청 앞 아시아 문화마루 입구가 달짝지근한 소시지 냄새로 가득했다.

아시아문화마루가 한달에 한 번 여는 '야(夜), 벼룩시장' 행사장 한 칸에 자리잡은 핫도그 판매 현장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개장전부터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모여들더니, 밤 9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청소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아시아문화마루 카페(cafe.naver.com/asiaculturemaroo)에 가입만 하면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탓에 입 안 가득 군침이 고일 정도로 맛있는 익어가는 소시지 주변에서 스마트폰으로 문화마루를 검색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다.

선박용 컨테이너를 쌓아 전시관으로 꾸민 아시아문화마루를 마주보는 도청 광장에는 다방커피 스타일의 커피, 커피 큐브를 잘게 잘라넣은 아이스크림 등 벼룩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마실거리가 등장했다. '전문 장사꾼'이 아닌 일반인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와 수제 가방, 수첩, 머리끈, 철 지난 옷이나 쓸만한 장신구 등을 펼쳐놓은 파란도 깔렸다. 물건 가격은 보통 1000원에서 시작해 3만원 안팎을 넘지 않는다.

좌판에 깔린 물건 만큼이나 손님들도 다양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 유모차를 밀고 나온 젊은 엄마와 외국인들도 눈에 띈다. 컨테이너 안은 대낮인데도 광주대 록밴드 'SOULS'의 거친 목소리와 리듬에 맞춰 발을 구르고 손을 흔들어대는 청소년들로 클럽 분위기가 물씬 났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광장으로 꾸미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계획한 '야(夜), 벼룩시장'이 열린 19일 밤 도청 광



지난 19일 아시아 문화마루에서는 '야(夜), 벼룩시장'과 '청춘의 자격'이라는 지역 대학 동아리들의 공연, 조선대 미술동아리 '바로크 80'의 전시회가 함께 열려 많은 청소년들과 시민들로 북적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좌판 물건 만큼이나 손님도 다양
시민·학생·외국인 등 열거 가득
매일 셋째주 토요일 문화마루 앞

장 주변 풍경이다. '야(夜), 벼룩시장'은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열리는 두 번째 행사. 벌써 입소문이 났는지 인터넷으로 판매자 등록을 받았지만 20개 팀이 넘게 불렀다고 한다. 핸드메이드 카드와 수첩 등을 판매한 디

자이너 이지혜씨도 "4월 말께나 행사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신청해 좌판을 열었다"면서 "직접 디자인한 카드를 3장에 1000원씩 받았는데, 접근이 쉽지 않은데도 찾아온 손님들이 정말 이상 많았다"고 했다.

서울과 달리, 광주에서는 이런 행사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매일 셋째주 토요일마다 한다고 하니 판매자 입장에서 참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이날 '야(夜), 벼룩시장' 뿐만 아니라 '청춘의 자격'이라고 불린 지역 대학 동아리들의 공연과 조선대 미술동아리의 전시회도 함께 열었다. 광주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간, 젊은이들이

즐거 찾는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조선대 '목신의 오후', 광주대 'SOULS'에 목포해양대와 동신대 등 7개 밴드 동아리 연합 공연이 펼쳐진 컨테이너 안은 대낮인데도, 누가 보건 말건, 젊음을 무기로 리듬에 몸을 맡기고 광음을 내지르거나 두 팔을 허공에 올리고 발을 구르는 200여 젊은이들의 열거도 가득했다.

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오진봉 주무관은 "문화전당 공사 지역에 있는 문화 마루와 인근 광장을 일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 즐기는 공간으로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애깃거리'가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中 포레 '파반느'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관객들은 인생과 시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물음을 던지게 되고, 젊음과 늙음의 사이길에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늙어가든 어려가든 결국 인생에 있어서의 시간은 끊임없이 흐를 뿐 멈추지 않는다는 진실과 직면하는 순간 영화는 끝난다.

영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랑수아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는 이 오묘한 분위기의 영화에 딱 맞는 사운드 트랙이다. 원래 파반느(Pavane)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여 스페인 왕실에서 자주 성행했던 무용이었고, 무곡이기도 하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작곡양식에 의해 많은 작곡가들이 곡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것이 라벨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 그리고 포레의 '파반느'.

루이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연주한 벨라 음반사의 연주가 좋다. 최근 이 음반은 SACD로도 재발매되어 고품질을 자랑한다.

하지만 포레 '파반느' 최고의 음반은 클래식 연주자 아니다. 바로 에니 해슬람이 노래한 '스틸 라이프'라는 크로스오버 음반. 영국의 위대한 그룹 '트레상스'에서 노래했던 그녀가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로얄 코럴 소사이어티와 함께 다양한 클래식 소품을 노래한 앨범이다.

"The day you started"라는 제목으로 개사된 포레의 파반느는 5옥타브의 음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에니 해슬람의 놀라운 목소리와 만나며 새로운 곡으로 재탄생한다. 1985년에 발매된 이 오래된 크로스오버 앨범은 몇십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인생의 시간에 지친 당신의 삶에 평온한 휴식을 선사해줄 것이 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5월 광주'를 노래합니다

'김원중의 달거리'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김원중의 달거리'(매월 셋째주 월요일) 이번달 공연은 '5월 광주'를 이야기한다. 2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등산 천왕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이상복씨와 소프라노 유영민씨로 구성된 '보헤미안 소울'과 김광철씨의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윤진철의 소리마당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김원중과 느티나무 밴드, 주홍씨의 샌드아트메이킹도 만날 수 있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신인들

소개하는 '줄탁' 코너에는 제1회 오월창작가예 대상탑인 '보이스 홀릭'이 출연하며 한국화가 백준선씨가 무대미술을 맡았다.

이달의 초대 손님은 일본 노래운동 단체인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사과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타고에(Utagoe)에서 활동하는 고바야시 히카루우타고에 전국협의회회국교류 위원)씨다.

우타고에 합창단은 김원중씨가 1998년 우타고에 초청으로 일본에서 공연을 한 후 답방형식으로 1999년 광주를 방문한



이래 14년째 5·18 기간이 되면 한국을 찾고 있다.

공연 티켓은 따로 판매하지 않으며 공연 관람료 모금함에 작은 정성을 모으면 된다.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의 먹을 거리를 만드는 영양빵공장에 보내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모집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제 9회 광주비엔날레(2012년 9월 7일~11월 11일) 기간 활동하게 될 도슨트(docent·전시 해설자)를 모집한다.

도슨트는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대인시장, 광주극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작가 및 전시 작품 설명 등을 하게 된다. 미술·문화예술 관련 학과 및 인문계열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도슨트 유경험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엔날레 홈페이지(http://gb.or.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접수 기간(5월 21일~6월 1일)에 우편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주 4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다. 문의 062-608-423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24시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